



1 아생화단지.  
2 공원에서 펼쳐진 철인 3종 경기.  
3 캠핑장.  
4 황톳길.  
5 파크 골프장. <양산시 제공>

노란 봄 사이로 꽃멍·모닥불 둘러앉아 불멍

## 세상 시름 이 곳에 두고 가네

경남 양산 '황산공원'

양산시 물금읍 낙동강 둑치에 자리한 70만여 평의 황산공원은 4계절 내내 밤·낮·없이 핫(Hot)한 장소 (Place)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특색있는 행사는 물론 취미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민과 인근 부산 등지의 이용객이 연 수백만에 달하는 것 외에 매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만 연간 150만명에 이를 정도여서 최근 전국적인 여행지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국관광데이터랩이 분석한 '세대별 인기 관광지'에 지난해 60대 이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자는 '황산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전년도 대비 방문 증가율은 무려 517%에 달했다.

이유는 산책은 물론 즐길거리가 많은데다 파크 골프 성지에서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관광재단이 최근 발표한 '경남관광 동향 및 이슈'에서도 황산공원이 내비게이션 검색 겟수 증가율이 전년대비 20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경남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강의 강바람이 물들고 해질녘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황산공원, 그곳은 이제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양산의 새로운 활력의 장, 힐링의 장, 건강의 장이 되고 있다. 양산시는 '2026 양산 방문의 해'를 맞아 낙동강 중심의 관광 거점인 황산공원을 '지나치는 관광지'에서 '마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대전환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현재 황산공원은 통도사에 이어 양산시 인기 관광지 2위를 차지하며 연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으나, 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야간 콘텐츠와 체류형 인프라를 더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관광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1년 365일 축제의 장…계절마다 색다른 매력 발산

2026년 황산공원은 1년 내내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찰 전망이다. 시는 기존 행사를 확대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총 14개의 축제 및 행사를 황산공원에서 개최한다. 봄에는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루는 '물금 벚꽃축제' (3월)가 상춘객을 맞이하고, 여름에는 도심 속 피서지인 '황산공원 물놀이장' (7~8월)이 운영된다.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는 10월에는 양산의 새로운 브랜드 축제로 자리 잡은 '에그박스터'와 '양산국화축제'가 황산공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에그박스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지속 및 확대 개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반려동물 쉼터 조성'도 추진돼 반려인들의 필수 여행 코스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1월=황산공원 불빛정원 2월=물금읍 정월대보름 행사, 양산시장배 전국 우수중학 야구대회. 3월=물금벚꽃축제, 양산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4월=양산시민생활체육대회. 5월=제29회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 양산시장배 황산 전국철인 3종 대회, 양산시장기 전국 우수팀 초청 족구대회. 6월 추억의 음악 나들이, 양산시파크골프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양산시민 자전거대축전. 7~8월=황산공원 물놀이장 운영. 9월 전국리버밸리볼대회, 대한민국족구협회장배 전국 족구대회. 10월=에그박스터 반려동물 문화축제 양산국화축제 (10~11월). 블루오션페스티벌 11월=양산국화축제, 양산시 전국 주니어 스네그골프 대회. 12월=황산공원 불빛정원 (12~1월) 양산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낮보다 화려한 밤 '체류형 관광' 인프라 대대적 확충

'양산방문의 해' 황산공원 변화의 핵심은 '밤'이다. 양산시는 방문객이 하루 이상 머물며 소비할 수 있도록 야간 경관과 체험 시설을 대폭 강화해 지금보다 더 핫한 장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낙동강의 수려한 경관과 자전거를 결합한 '낙동선셋 바이크파크'는 오는 2028년까지 총 18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라이딩 스쿨존, 펌프트랙존, 선셋바이크터널 등을 갖춰 황산공원이 레저와 힐링이 공존하는 테마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간 조명시설과 전망대 리모델링을 통해 황산공원의 밤을 밝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모아진다.

겨울철 대표 불거리인 '황산공원 불빛정원'과 강변 산책로 공원등 설치, 야간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365일 밤이 아름다운 공원을 만든다. 넓은 공원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전기 관람차' 도입과 사계절 관찰 가능한 '아생화 단지' 조성은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밤길을 멈추게 할 것으로 보인다.

◇MZ세대 거닐한 이색 콘텐츠와 스포츠 마케팅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한 트렌디한 콘텐츠로 올해 상반기 황산공원 일원에서 '아외 방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산시 관광캐릭터인 '양산프렌즈'를 활용한 미션 수행형 게임으로, 참가자들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과 기념품을 제공해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한다. 낙동강변의 시원한 바람을 가르는 스포츠 행사도 연중 이어진다. 3월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시작으로 5월 '황산 전국 철인3종 대회', 12월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등 총 12개의 전국 단위 체육대회가 열려 스포츠 마니아들이 양산을 찾게 된다.

2026 양산 방문의 해는 황산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와 레저, 힐링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수변 관광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양산과 황산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어서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산공원은 현재도 '핫' 한 장소이지만 양산시가 공원내와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 찾고 싶은 장소가 될 것이다.

/경남신문=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